

# 이인범 전도인

출처: <http://kccs.pe.kr/rmp013.htm>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인물자료(국내) 9번글

## 이인범 전도인



일본 주재 카닝햄 선교사는 1907년 4월말 경 한국을 처음 찾은 이후 한국선교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1911년 말에 일본인 성도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을 위해서 헌금한 15.70엔을 일본 거주 한국인을 한국에 보내 선교사업에 이 돈을 쓰게 하였고, 1916년에도 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전파의 거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1924년 10월에 가서야 이완균(Li, Wan Kyun) 전도인을 정식으로 한국에 파송하게 되었다.

이후 1932년에는 이인범(I. P. Lee, 사진 오

른쪽) 전도인을 한국에 파송하여 일하게 하였다. 이인범은 1907년 카닝햄을 처음 한국에서 만났을 당시 이미 믿는 자였으나 카닝햄을 통해서 일본에 건너가 그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침례를 받았으며, 한국에 파송되기에 이른 것이다. 한국에 파송된 이인범은 YMCA에서 일을 했는데, 한국에 머무는 동안 100여명에게 침례를 주었고, 몇 군데에 교회도 개척하였다. 카닝햄은 이 일에 관해서 {도교 크리스찬}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하나님은 "가라"고 명령하셨고, 한국 사람들은 와서 도와 달라고 간청해 오고 있으며, 우리들도 가고 싶다. 가고 싶은 정도가 아니고 갈 준비가 되어 있으며, 가기를 절대적으로 원한다. 보내고 안 보내는 것은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달렸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

한국에서 신약교회의 설립의 때가 왔다. 한국에는 2개의 큰 교파의 교회가 있는데, 이들은 성공하고 있지만, 이인범에 의하면, 인간적인 신조를 벗어나서 성경만 믿으려고 하는 무리가 증가하고 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인범을 두 번이나 한국에 보냈다. 한국교회는 두 가지가 유명하다. 성경 공부와 기도이다. 내가 한국에 가서 한번은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모인 숫자가 1,200명이었다. 참석한 자들이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

J. 미첼 웰리(사진 가운데) 선교사가 1935년 3월 경에 한국에 도착해서 찍은 3월 24일 사진에 이인범(사진 오른쪽)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어서 이인범이 웰리 가족을 영접하여 안내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웰리는 이인범을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에게 보낸 서신에서 설교자로 소개하였다. 힐 요한 선교사도 1939년 한국에 왔을 때 이인범을 만난 것으로 회고하였다.

그러나 이인범은 미첼 웰리 가족이 한국에서 일 년을 채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웰리는 서신에서 "도교 주재 커닝햄 선교부의 감독아래 허락된 부정적과

비기독교인다운 행위들로 인해서 한국에서의 선교 사역은 매우 유감스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때의 일을 되돌아본다 해서 좋을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본국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중대한 사유들 중의 하나였습니다."고 회고하였다. 또 힐 요한 선교사의 회고에 의하면, 1939년 이전에 카닝햄 선교부 산하의 오스트랄리아 멜버른 출신의 토마스 G. 헛치 가족이 한국 선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1939년 6월 경, 힐 요한 가족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헛치와 그의 부인 그리고 딸 앨리스를 만났지만, 그 당시 그들은 한국을 떠날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1939년 여름이나 가을에 한국을 떠난 것으로 압니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이인범이 매우 정직하지 못했으나 그 사실을 일본 동경의 선교부는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제 2차 대전 중이거나 후에 이인범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버리고 장로교단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고 하였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이인범 전도인은 미국인 선교사들에게 정직하다는 인상을 주지 못했던 것 같고, 이 일로 카닝햄 선교부에 대한 감정도 상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쉘리는 한국을 떠난 후에 카닝햄 선교부에서 면직된 채이스 선교사를 지원하기에 이르렀고, 헛치도 한국을 떠나게 된 것이다. 어쨌든 이인범 전도인은 일본주재 카닝햄 선교부의 후원아래 한국에서 일한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자들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었음이 명백하다.